

‘전주씨네투어X산책’ 내달 6~28일 진행 초가을, 야외 무료 영화보러 가자

매주 금·토 오후 8시 30분... 총 37편 국내 우수 단편영화로 구성

전주씨네투어 with 폴링인전주도 영화의거리 등서 내달 6~8일 진행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전주시 관광거점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야외 영화상영 프로그램인 '2024 전주씨네투어X산책'을 전주한옥마을 휴빌리지에서 9월 6일부터 28일까지 9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 토요일마다 진행한다.

관광거점도시 전주시가 주최, 전주국제영화제가 주관하는 '전주씨네투어' 사업은 전주시의 대표 문화 콘텐츠인 영화와 전주시 관광자원을 접목해 2023년부터 다채로운 영화X여행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전주씨네투어X산책'은 전주의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야외 영화 상영과 공연을 선보이는 전주씨네투어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올해 상반기 전주 남부시장, 세병호, 전주대학교, 연송공원, 덕진공원 등 전주만의 특색있는 공간에서 진행되었던 전주씨네투어X산책의 이번 상영 공간은 전주한옥마을의 휴빌리지(Hubillage)다.

휴빌리지는 남녀노소 모두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며 국악공연, 사주오행, 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의 쉼터가 되고 있다.

이 공간에서 9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 토요일마다 영화상영이 진행되며 토요일에는 국악공연과 조선팝 공연 또한 예정되어 있다.

이번 전주씨네투어X산책의 상영작은 총 37편의 국내 우수한 단편영화로 구성했으며 한국 단편영화배급사네트워크와 (사)한국독립영화협회(서울독립영화제)와 함께 한다. 상영작들은 전체관람가와 12세이상관람가로만 이루어져 있어 가족과 함께 볼 수 있고 무료로 편하게 관람하면 된다.

총 8회의 상영 중 6회는 '한국단편영화배급사네트워크'가 여행, 일탈, 음식을 주제로 큐레이션 한 작품들로 구성하였다.

전주국제영화제는 평소 관람 기회가 많지 않은 우수한 한국 단편영화를 보다 많이 대중에게 소개하고 단편영화만이 지닌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부터 '한국단편영화배급사네트워크'와 협업해 전주씨네투어X산책 큐레이션을 진행해오고 있다.

'한국단편영화배급사네트워크'는 단편영화와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만들어진 연합으로 배급사 (주)인디스토리·(주)퍼니콘·센트럴파크·씨앗·(주)포스트핀·필름대비가 함께하고 있다.

9월 27일과 28일에 상영되는 작품은 서울독립영화제 순회상영회 '서울독립영화제2023' 상영작으로 서울독립영화제2023 수상작과 화제작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상영에서는 서울독립영화제2023 단편대상 수상작 '스위밍'을 비롯한 8편의 단편영화를 만나볼 수 있다.

전주씨네투어X산책이 진행되는 매주 토요일에는 19시부터 휴빌리지 국악콘서트와 조선팝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조선팝은 '조선'과 'POP'의 합성어로 전통국악을 기반으로 현대적인 해석을 더한 장르로, 관광거점도시 전주시가 글로벌 공연 콘텐츠로 육성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는 국내 퓨전국악의 대표 주자로 아름다운 국악과 다양한 장르를 접목시켜 동서양의 조화를 연주하는 '서울 아츠 스트링 앙상블', 국악의 기동을 자키고자 하는 '국악콘텐츠 고문'과 함께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복합예술 창작단체 '살롱드국악 선율소리'와 퓨전 국악팀 '모던국악프로젝트 차오름'이 함께 한다.

전주씨네투어X산책과 함께 9월 6일부터 8일까지 '2024 전주씨네투어 with 폴링인전주'도 전주 영화의거리와 전주한옥마을 일대에서 진행된다.

9월 한 달간 전주를 영화로 물들일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8월 중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https://www.jonjufest.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폐신문지로 제기 만들어 볼까?’

전통문화전당, '제기 투호 핫스팟'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이하 전당)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신문지를 활용해 놀이도구를 만들어보는 우리놀이 체험행사 '제기 투호 핫스팟'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매일 사람들에게 잊히고 버려지는 폐신문지를 재활용해 놀이도구로 만들어보는 체험으로 폐신문지로 제기를 만들어 제기차기, 합동제기 등 다양한 제기놀이를 배우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전통놀이에 현대화를 접목해 개발한 △타구공 투호 △사방투호 등의 미션형 체험과 △추여의 뽑기 △컬러링 손거울 기념품 만들기 등의 이벤트를 함께 진행해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행사는 전당에 구축된 우리놀이 체험 공간 놀이집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지 상시 진행되며 현장예약제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놀이집(063-281-1546)에 문의하면 된다.

김도영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어릴 적 버려지는 신문지로 제기나 딱지 등을 만들어 친구들과 신나게 놀았던 기억은 추억 속 동심으로 남아있다"며 "이번 행사가 어른과 아이의 동심을 이어주고 우리놀이를 즐기며 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운영하는 놀이집은 누구나 자유롭게 우리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고누, 쌍륙, 철교 등 다양한 놀이와 함께 현대화 놀이도구인 보드 게임 등을 상시로 즐길 수 있다. /김재훈 기자

‘고창 문수사 대웅전’ 보물 지정서 전달

심덕섭 고창군수 "문화유산·자연유산 보존·활용 노력"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지난 16일 오전 고창 문수사(주지 태효스님)에서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승격된 '고창 문수사 대웅전'의 보물 지정서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달식은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인 선운사 경유 주지스님, 내장사, 내소사, 개암사 주지스님, 중앙종회원 10여명의 스님들과 불교 신도들이 함께 해 '고창 문수사 대웅전' 보물 승격을 축하했다.

이날 심덕섭 군수는 문수사 태효스님에게 보물지정서를 직접 전달하며 축하했다. '고창 문수사 대웅전'은 측면까지 공포가 설치된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다포계 맞배지붕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건축물이다.

조선 전기이후의 양식과 전라도의 지역적 특색인 단순하면서도 강직한 공포의 형태와 짜임은 1663년(효종 4) 중창 당시의 형태를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어 역사적·학술적·건축학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한 팔작지붕에서 맞배지붕으로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다포계 맞배지붕의 기법과 양식을



충실하게 갖춰 장엄적인 효과를 극대화했고, 단청 역시 문양사적 특이함과 천연재료 특성의 옛 기법이 남아 있어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높아 보물로 승격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문수사에는 대웅전을 포함해 국가지정 보물 3점과 천연기념물 1점 및 도지정문화유산 3점 등 많은 국가유산이 분포해 있는 만큼 소중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도자 문화사업 업무 협력·작가 교류 지원 '맞손'

남원시민도에대학, 도예 문화교류 협약

남원시민도에대학이 2024 아시아 청자문화 컨퍼런스 아시아 도예문화 교류 국제행사에서 중국 경덕진 도자 대학 상위고등 연구원과 도예문화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도자 문화사업에 관한 업무 협력, 작가 교류 지원, 도자 산업의 시장진출, 다른 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발전 등 실질적으로 업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방문은 중국 저장성 사오싱시 상위구가 주최하고 경덕진도자대학 상위도자고등연구원 이 주관하는 행사로,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한국·중국·일본 등의 아시아에서 초청된 도예 작가, 관계자들이 초청되어 청자 제작 기법 워크숍과 국제 전시가 진행됐으며, 중국 상위도자고등연구원은 경덕진 도자 대학 직영기관으로 국제 시스템을 갖춘 창작 스튜디오 운영과 도자 산업 인력양성, 도자기 기법 재료 연구, 전시와 판매시설 국제 도자문화 교류 추진 등 도자기 전문 연구기관이다.

남원시 대표로 초청된 양관식 도예작가(남원시민도에대학 응용과장)는 워크숍을 통해 전통과 현대가 공존,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도자



남원시민도에대학이 2024 아시아 청자문화 컨퍼런스 아시아 도예문화 교류 국제행사에서 중국 경덕진 도자 대학 상위고등 연구원과 도예문화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기 재료의 기법을 탐구하고 현대적 조형성을 선보여 아시아 도예가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남원시는 한·중·일 도자 문화 교류의 교두보로서 교류를 확고히 하고 합파아트벨리네 건립 예정인 도자전시관 건립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도자문화 교류의 실질적 협약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양 기관의 도자산업과 도예 인재 양성에 시너지효과가 기대할 만하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다담', 28일 개최... 미술사학자 정병모 교수 초청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국립민속국악원 예음관에서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콘서트 '다담'을 개최한다.

이번 8월 '다담' 이야기 손님으로는 미술사학자이자 한국민화학회 교장인 정병모 교수로, 관객들은 깊이 있는 민화 이야기를 들으며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의 공연을 통해 국악의 아름다움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정병모 교수는 경주대학교 문화재학과 교수로 한국민화학회와 한국민화센터를 창립하였

고, 민화를 통해 한국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해 왔으며, 그의 대표 전시인 '책거리'는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박물관과 대학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날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은 △수궁가 △토끼 배 가르스 대목 △원장현 流 대금산조 △흥보가 △박 타는 대목을 선보일 예정이며, 다음 '다담' 일정은 9월 25일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 10월 30일 식물학자 이우미, 11월 27일 시인 김용택이 이야기 손님으로 출연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경주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서 계광

관공각

내아